

# 금쪽상담소 상담 일지

이름: 김재연

학번: 2021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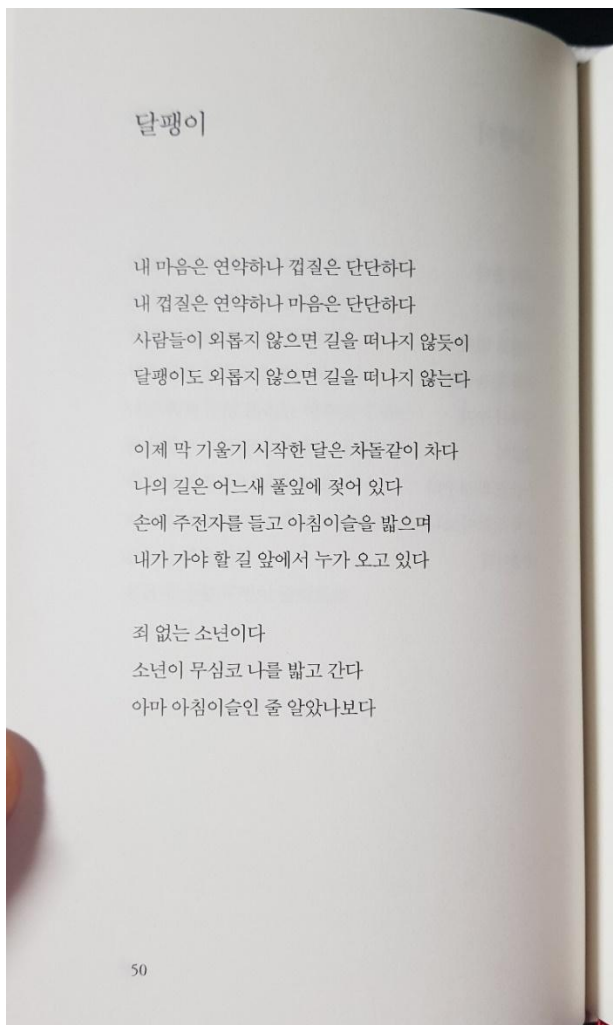
상담 일자: 10월 9 일

**Q: 금쪽이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A: 아는 친구들이 군대에 가있거나 현재 복학중인 상황으로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약간 외로움을 느낌.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부럽고 재미있어 보임.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Q: 금쪽이에게 어떤 시를 추천해 주었나요?**

1. 달팽이



해석

1연- 사람들도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음 -> 외로운 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길을 떠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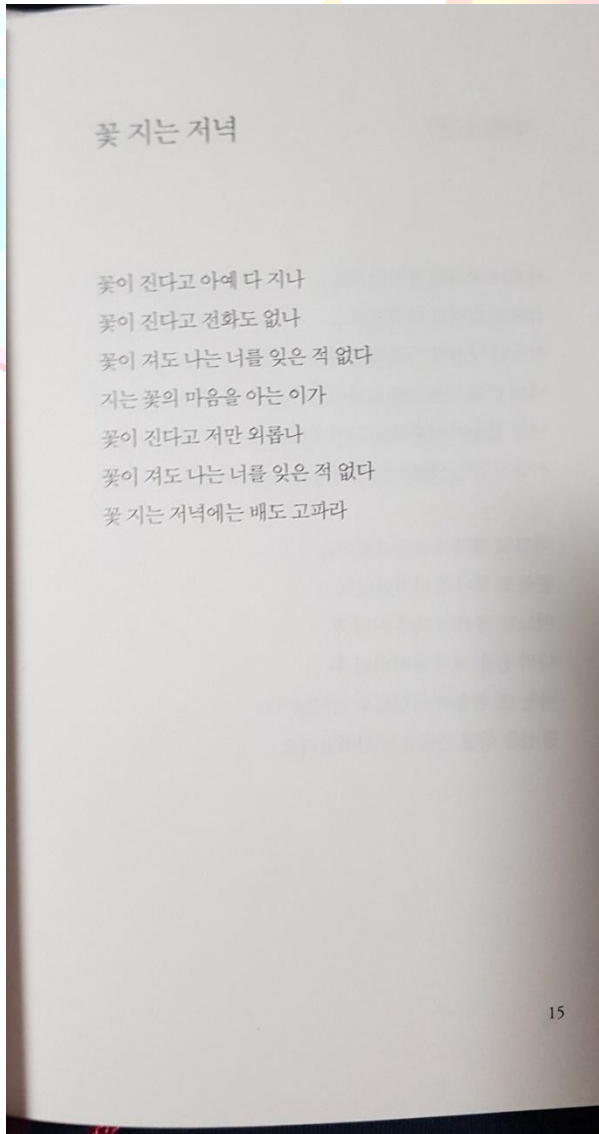
2연-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다 -> 혼자라고 생각했던 공간에 다른 사람도 있음(나 혼자만 외롭게 걷어가는 것이 아님)

3연-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밝고 간다/아마 아침이슬인 줄 알았나보다 -> 달팽이인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외롭게 걷어가는 소년의 모습

선정이유

나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느낌으로서 위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외로움을 원동력 삼아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이 시를 처방하게 되었다.

2. 꽃 지는 저녁



## 해석

### 선정 이유

누구에게나 꽃이 지는 때가 있고, 다시 피어날 때가 있다. 꽃은 지더라도 완전히 지지 않는다. 꽃이 아예 다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피어나리라는 것이다. 꽃이 지며 외로운 것은 혼자가 아니고, 꽃이 지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꽃이 지는 힘든 시기가 있지만,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이전까지의 일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대학 새내기라는 꽃이 피는 시기가 지나고, 군대를 갔다온 후 지금이 꽃이 지는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 머지않아 다시 피어나고, 또 다른 행복과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